

# 朝鮮朝 文宗, 端宗年間 經筵에서의 讀書討論 考察

A Study on the Reading Discussion in the Gyeongyeon(經筵) between period of Munjong(文宗), Danjong(端宗) in Joseon Dynasty

金重權(Kim, Joong-Kwon)\*

## ◁ 목 차 ▷

- |                   |        |
|-------------------|--------|
| 1. 緒言             | 3.2 端宗 |
| 2. 文宗, 端宗年間の 經筵制度 | 4. 結言  |
| 3. 讀書行態 및 讀書討論    | <참고문헌> |
| 3.1 文宗            |        |

## < 초 록 >

本考는 조선시대 文宗, 端宗 父子를 대상으로 經筵제도를 비교하고 이 제도 하에 실시된 이들의 독서행태와 독서토론 내용을 분석하여 역대 제왕들의 독서력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문종은 세종조에 실시된 經筵제도를 따르고 있지만 영경연사를 經筵에 참여시켰다는 점과 단종은 3강(조강, 주장, 석강)을 실시했다는 점이 조선사의 시발점이 되었다. 독서행태에 있어서 문종은 매일 經筵에 열성적이었으나 건강악화로 독서의 장애를 가져왔다. 그 결과 그가 읽은 책은 『近思錄』, 『大學衍義』, 『論語』, 『孟子』, 『中庸』이 전부였으며, 단종의 경우는 觀射 등을 좋아하여 독서를 소홀히 한 점도 있지만 수양대군의 왕권찬탈로 집권기간이 짧아 많은 책을 읽지 못하였다. 단종의 독서자료는 『論語』, 『孟子』, 『中庸』이었고 이들의 토론내용에 있어서도 독서력에 따라 각자 차이를 보이고 있다. 문종은 성리학의 기본이론을 바탕으로 실사구시를 추구하는 실학적인 내용이 담겨져 있는 반면에 단종의 경우는 교육적인 목적이 담겨져 있음을 밝혔다.

요어: 근사록, 논어, 단종, 대학연의, 맹자, 문종, 중용

\* 光州大學校 人文社會大 文獻情報學科 副教授(jkkim@gwangju.ac.kr)

접수일: 2005년 6월 7일 최초심사일: 2005년 6월 10일 심사완료일: 2005년 6월 20일

<ABSTRACT>

This is to study the reading discussion in the Gyeongyeon(經筵) between the Reign of Moonjong(文宗) and Danjong(端宗) in Joseon Dynasty.

Major findings are as the follows;

1. The Gyeongyeon(經筵) that was started in Goryeo Dynasty was developed in early Chosun Dynasty, but it was repealed by the king Seajo(世祖),

2. The king Munjong(文宗) have had several more of the reading discussion than pre-kings, and the number of times that he participated to the reading discussion was 219, and the king Danjong(端宗) was 25, He was not almost present at the reading discussion of the Gyeongyeon(經筵).

3. The reading materials that they read at those day included Geunsalog(近思錄, Daehagyeonye(大學衍義), Noneu(論語), Maengja(孟子), Jungyong(中庸) etc., these books were necessary to build up king's character and rule the country.

Keywords : danjong, gyeongyeon, munjong



## 1. 緒言

앞 연구에서도 밝혔듯이 경연은 왕과 경연관이 경서를 읽고 토론하는 자리이다. 주로 왕 자신의 인격함양과 올바른 국정운영을 위한 제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조선조에 있어서 경연의 시발점은 태조로부터 비롯되었으나 태조 자신은 거의 경연을 열지 않았으며, 정종역시 집권 기간(2년 2개월)동안 31회의 경연을 열어 『論語』, 『通鑑』, 『大學衍義』에 그쳤다. 태종은 집권기간 17년 10개월인데도 15회 정도로 경연의 회수가 적었다. 그가 읽었던 책은 『大學衍義』, 『尙書』, 『十八史略』, 『中庸』 4종뿐이다. 이 들이 공통적으로 독서저해요인이 된 것은 격구나 사냥 등을 좋아하였기 때문이다. 세종의 경우는 집권기간이 31년 6개월로 독서토론 회수가 집권 21년(1439)까지 총 1976회로 나타났다. 그의 독서 자료는 『大學衍義』, 『春秋』, 『通鑑綱目』, 『中庸』, 『尙書』, 『大學』, 『論語』, 『孟子』, 『詩經』, 『周易』, 『史記』, 『六典』, 『自治通鑑續編』, 『律呂新書』, 『宋鑑』, 『性理大全』, 『宋朝名臣言行錄』 등으로 선왕들에 비해 독서량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세 종역시 22년(1440)부터 31년(1449)까지 10여 년 동안 거의 독서기록이 없었다.<sup>2)</sup> 이는 말년에 독서의욕이 침체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그의 뒤를 이은 문종을 비롯하여 단종은 경연제도를 재정비하여 경연에서의 독서와 토론은 계속되었다. 문종은 부왕의 독서열을 이어받아 거의 날마다 경연에서 독서토론을 실시하였으며, 단종은 경연을 3강 즉, 조강, 주장, 석강 1일 3회로 나누어 경연을 활성화시키려고 했다. 이러한 사실들은 이미 경연에서의 교육적인 측면이나 역사적인 측면에서 발표된 바 있으나<sup>3)</sup> 이들의 독서행태나 독서토론에 대해

2) 金重權, “朝鮮 太祖·世宗年間 經筵에서의 讀書討論 考察.” 『書誌學研究』 제27집(2004. 6), p.281-308.

3) 姜泰訓, “朝鮮朝 經筵의 教育的 役割,” (박사학위논문. 원광대학교대학원, 1991)  
 김윤식, “朝鮮世祖의 學術活動과 書籍文化에 대한 考察,” 『書誌學研究』 第29輯(2004. 12), p.15-48.  
 南智大, “朝鮮初期의 經筵制度,” 『韓國史論』 6(1986). p.117-170  
 李相玉, “經筵에 나타난 經學과 帝王,” 『友石 文理大·法經大論文集』 第4輯(1970. 12), p.131-186.

서는 구체적으로 밝혀진 바 없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문종, 단종父子가 실시한 경연제도에 관해서 문헌을 대상으로 조사한 뒤 그들의 독서행태 및 독서토론 내용 등을 분석하여 독서문화사 연구에 자하고자 한다.

## 2. 文宗, 端宗年間の 經筵制度

先王들과 마찬가지로 文宗, 端宗 年間の 경연에서도 책을 읽고 경연관들과 토론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졌다. 왕들은 즉위하자마자 경연제도를 재정비한 뒤 경연에 나아가 경연관들과 독서하면서 그 책에 관해서 토론을 벌이거나 아니면 정사에 관하여 논의하곤 하였다. 경연의 가장 큰 목적은 왕 자신의 올바른 정신 자세를 확립하고 신하와 백성들을 교화하고, 나아가 국가를 부강하고 평화로운 나라로 만들어 가는데 있다. 따라서 즉위하자마자 각 기관의 재정비와 함께 경연제도도 빠질 수 없는 일이었다. 경연관 임명과 더불어 경연의 시기와 경연에 참여할 인원수를 조정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문종의 경우 즉위해인 7월에 경연제도를 재정비하면서 집현전의 관리 20명으로 정하고 10명은 경연을 10명은 서연을 담당하도록 하였다. 경연관과 승지는 매일 경연에 참여하도록 하고, 지경연과 동지경연 중 1인, 문무 2품 이상의 관원 중 1인은 3일마다 경연에 참여하도록 하였으며, 4품 이상의 관원도 참여하도록 하였다.<sup>4)</sup> 동 8월에는 경연제도를 좀 더 구체화시켜서 侍講官 이하의 관원 2명, 參贊官 1명, 史官 1명으로 정하고 이들은 매일, 同知經筵 이상의 관원 1명과 司諫院 1명은 3일마다 한 번씩 참여하도록 하였다. 경연에 참여할 사람은 이른 아침에 集賢殿에 모여서 進講할 글을 토의한 뒤 경연에 들어가도록 하

4) 朝鮮王朝實錄, 文宗 卽位年 7月 庚戌(8日) 권2, 책6, p.252.

세종 때는 3명이 진강하다가 1명을 줄였으며, 문종 때는 知經筵事, 同知經筵事 중에 1명은 이틀을 걸러서 나왔고, 承旨 1명, 集賢殿 관원 2명, 司諫院에서 1명, 史官 1명은 날마다 참여하였다.(世祖實錄 卷1, 世祖 1年 6月 辛酉, 7책, p.64)

었다.<sup>5)</sup> 이듬해인 문종 1년(1451) 3월부터는 鄭麟趾, 鄭而漢의 건의로 領經筵事도 경연의 진강에 참여하도록 하였다. 영경연사를 경연에 참여시킨 것은 문종이 처음이지만<sup>6)</sup> 1개월도 못가서 동 4월 15일부터는 진강에 참석하지 못하도록 하였다.<sup>7)</sup> 문종은 이러한 제도에 맞추어 1일 1회의 독서와 토론을 병행하였다.

단종 때는 경연제도를 대폭 개편하여 1일 3회로 증강하도록 하였다. 이 제도를 3강이라 하는데, 조강, 주강, 석강으로 나누어 경연관들과 독서하면서 공부하는 형식을 취했다. 이 제도는 조선시대 처음으로 실시한 제도로써 어린 나이에 집권한 성종에게도 적용되었다. 단종은 즉위 시에 교서를 반포하면서 그 내용 중에 “내가 이제 어리고 학문이 성취되지 못하여 예전의 居喪하던 대로 禮의 글을 읽음에 있어서, 비록 빈소 옆에 있더라도 학업을 폐하지 않고 항상 經筵官과 함께 있으면서 喪禮를 읽고, 날마다 경연 대신과 같이 강론에 힘쓰겠다.”<sup>8)</sup> 고 다짐한 바 있다. 그 후 의정부에서는 다음과 같은 經筵事目を 정하여 아뢰었다.

1. 졸곡 전에 진강을 시작하고 매달 초1일에 領經筵 이하 郎官까지 함께 들어오고 다섯 아일(衙日)에는 영경연·知經筵 이하 承旨 각 1명, 낭관 2명, 매일 朝講에는 知經筵 이하 승지 각 1명, 낭관 2명, 晝夕講에는 승지 1명, 낭관 2명으로 할 것.

1. 영경연을 집견할 때에는 衰服을 사용하고, 상시에는 布衣·布冠·麻帶를 쓸 것.

1. 『家禮』의 喪制篇을 진강할 것

1. 臺諫·史官은 졸곡 후에 들어와 참여할 것<sup>9)</sup>

즉, 매월 1일에는 경연관 모두가 경연에 참여하고, 보름(매월 15일)에는 영경연사 1명, 승지 1명, 낭관 2명, 매일 실시하는 조강에는 지경연사 1명, 승지 1명, 낭관 2명이 참석하며, 주강과 석강에는 승지 1명과 낭관 2명만을 참석하도록 한 것이다.

이와 같이 졸곡(국상 후 3개월 만에 지내는 제사)전에 지켜야할 사목을 정하

5) 朝鮮王朝實錄, 文宗 卽位年 8月 己亥(28日) 권3. 책6, p.276.

6) 朝鮮王朝實錄, 文宗 1年 3月 乙巳(6日) 권6. 책6, p.364.

7) 朝鮮王朝實錄, 文宗 1年 4月 癸未(15日) 권7. 책6, p.376.

8) 朝鮮王朝實錄, 端宗 卽位年 5月 庚戌(18日) 권1. 책6. p.500.

9) 朝鮮王朝實錄, 端宗 卽位年 6月 丁丑(16日) 권1. 책6. p.512.

여 실시하도록 했는데 예문 봉교 전효후는 당시의 사실을 기록하여 후세에 남겨야한다는 일념으로 사관을 경연에 참여시켜야 한다고 주장하였지만 성사되지 못하였다.<sup>10)</sup> 단종은 졸곡 전 3개월간 이 사목에 따라 『家禮』의 <喪制篇>을 읽었다.<sup>11)</sup> 졸곡이 끝난 후 단종 즉위년 9월 18일 의정부에서 다음과 같은 경연 사목을 재조정하여 보고하였다.

1. 매일 朝講에 臺諫, 史官 각 1명, 晝講과 夕講에는 사관 1명이 참석한다.

1. 領經筵官을 접견하는 날은 翼善冠, 白衣, 烏犀帶를 갖추고 나아가고, 평상시에는 便服을 입고 나아간다.

1. 朝啓가 있는 날에는 晝講은 없애고, 매일 夕講에는 예전 배운 것을 익힌다.<sup>12)</sup>

졸곡전의 사목과 비교해 보면 간관과 사관은 경연에 입시를 불허했던 것을 입시하도록 했으며, 영경연관을 접견할 시 왕의 의상은 졸곡전에는 衰服을 사용하고, 평상시에는 布衣·布冠·麻帶를 했던 것을 졸곡 후에는 翼善冠·白衣·烏犀帶와 평상시에는 便服으로 바뀌었다. 졸곡전의 사목에는 단종이 읽어야 할 과목으로 『家禮』의 <喪制篇>이 정해져 있으나 졸곡후의 사목에는 없다. 단종 1년 10월 17일 부터는 그 동안 영경연은 매일 초하루와 보름에만 들어왔던 것을 3일마다 들어오도록 하였다.<sup>13)</sup>

본 사목에서 알 수 있듯이 단종은 매일 조강, 주장, 석강 3회로 나누어 실시하려고 계획을 세웠으나 매일 3회가 지켜진 것은 아니었다. 그 근거를 보면 단종 즉위년 9월 27일에 강맹경과 의정부와의 논의하여 올린 내용에서,

“이제부터 해가 돋은 후 5시에 朝啓를 받고 經筵은 해가 짙을 때에는 晝講을 없애고, 조계하는 날에는 경연을 없애소서.”하였다.<sup>14)</sup>

이는 곧 겨울철에는 주장을 제외하고 조강과 석강만을 실시하며, 정전에서

10) 朝鮮王朝實錄. 端宗 卽位年 6月 辛巳(20日) 권1. 책6. p.512.

11) 朝鮮王朝實錄. 端宗 卽位年 6月 己卯(18日) 권1. 책6. p.512.

12) 朝鮮王朝實錄. 端宗 卽位年 9月 丁未(18日) 권3. 책6. p.538.

13) 朝鮮王朝實錄. 端宗 1年 10月 庚子(17日) 권8. 책6. p.629.

14) 朝鮮王朝實錄. 端宗 卽位年 9月 丙辰(27日) 권3. 책6. p.538.

월 2회(초하루와 16일)씩 여러 중신들과 만나서 정사를 의논할 때는 경연에 나가지 않는 것으로 변경한 것이다.

본 경연제도는 세조 때 축소 실시하다가 경연의 책임을 맡고 있는 기관인 집현전을 혁파하면서 경연제도가 폐지되었다.

이상의 경연제도를 왕조별로 <表>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表 1> 文宗, 睿宗年間 經筵制度

왕조	경연참여일 및 경연관 수	개정	비고
문종	*매일:侍講官 2명,參贊官 1명,史官 1명. *매 3일: 同知經筵 이상의 관원 1명, 司諫院 1명	* 영경연사 참여중지	문종 1년 3월 6일부터 영경연사 참여승락 4월 15일 중지
단종	* 3강(조강, 주강, 석강) 제도 실시 *매월 1일 경연관 전원참여 *매월 15일: 영경연사 1명, 승지 1명, 낭관 2명 *매일: 조강에는 지경연사 1명, 승지 1명, 낭관 2명이 참석하며, 주강과 석강에는 승지 1명과 낭관 2명 참석	*매일: 朝講에 臺諫 史官 각 1명 晝講과 夕講에는 사관 1명이 참석한다.(낭관 2명은 의무) *영경연은 매월 초하루와 보름에만 들어왔던 것을 3월마다 참석 * 해가 짧을 때는 주장 없음 * 매월 초하루와 16일에는 경연 정지	

<表 1>에 나타난 領經筵事는 3명(정 1품)으로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이 겸임하고, 知經筵事 3명(정 2품)으로 대제학이 겸임, 同知經筵事 3명(중 2품)으로 제학이 겸임, 參贊官 7명(정 3품)으로 승지와 부제학이 겸임, 그리고 侍講官(정 4품)은 직제학과 부응교, 시독관(정 5품)은 교리와 부교리, 檢討官(정 6품)은 수찬과 부수찬, 司經(정 7품)은 박사, 說經(정 8품)은 저작, 典經(정 9품)은 正字가 겸임하였다.<sup>15)</sup> 그밖에 사간원의 관원 1명과 사관 1명이 윤번으로 경연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 원칙이었다.

15) 經國大典 卷1, 吏典, 正三品衙門, 經筵條. p.13下左.  
增補文獻備考 卷220, 職官考 7, 館閣, 經筵廳條.

### 3. 讀書行態 및 讀書討論

오늘날 독서자료의 선정은 문자해득력, 어휘력, 독해력, 문해력 등에 따라 독자가 직접 선정하기도 하고, 학교 교사나 단체 등에서 선정해준 자료를 대상으로 독서하는 것이 보편적이다. 그러나 조선시대의 경우는 그렇지 못했다. 성리학을 바탕으로 발간된 서적이 한정되다 보니 독서선정이 자유롭지 못하였다. 어렸을 때는 문자터득을 위해 『千字文』, 『類合』 등을 읽었고, 예절을 배우면서 문해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推究』, 『童蒙先習』, 『擊蒙要訣』, 『四字小學』, 『小學』, 『明心寶鑑』 등이 선정되었으며, 성인이 되면서 『大學』, 『論語』, 『孟子』, 『中庸』, 『詩經』, 『禮記』, 『書經』, 『周易』, 『春秋』, 『近思錄』 등이 일반적인 독서자료였다. 물론 전자와 후자는 모두 일반인들의 독서자료 선정으로 다를 바 없지만 조선시대 제왕들의 독서자료 선정은 자유롭지 못하였다. 임금의 읽고 싶은 책이 있어도 경연관들과 상의해서 결정하거나 아니면 경연관들이 선정해준 책을 읽어야만 했다. 그 이유는 왕이 적절한 책을 선정하여 올바른 왕도를 펼쳐야 修身齊家治國平天下를 이룩할 수 있다는 신념에서 나온 것으로 보인다. 왕의 자리에 즉위하면 『大學衍義』 아니면 『近思錄』이 주된 독서자료가 되었다. 선왕의 경우 정종은 『論語』, 태종, 세종은 『大學衍義』, 문종은 『近思錄』, 단종은 『論語』로 경연을 시작하였다. 이는 왕들의 독서력이나 연령 등을 고려해서 선정된 것이지만 세자시절에 서연에서 독서량이 많을 경우는 『論語』가 아닌 『大學衍義』나 『近思錄』이 경연에서 필수자료로 선정된다.

독서토론의 경우 경연관들이 교대로 경연에 참석하여 시독관이 읽고 시강관이 토론의 주 대상이 되지만 영경연사, 지경연사, 동지경연사들도 참여하며, 또한 승지와 사관이 배석하여 왕의 지시사항이나 그 토론과정에 있었던 일들을 기록하는 일을 담당하게 된다. 따라서 본 장에서는 문종, 단종을 대상으로 그들의 독서행태 및 독서토론의 사례를 분석하고자 한다.

### 3.1 文宗의 讀書行態 및 讀書討論

#### 3.1.1 文宗의 讀書行態

문종은 1414년(태종 14) 10월 3일 세종과 소헌왕후(沈溫의 딸)의 長子로 태어났다. 이름은 珣, 자는 輝之이다. 8세(1421)에 세자에 책봉된 뒤 성균관에 입학하여 학문을 하였다. 부왕인 세종의 지병으로 29세(세종 22, 1442)부터 8년간 섭정을 하고, 1450년 2월에 세종이 죽자 왕위를 계승하였다.<sup>16)</sup> 문종 역시 부왕인 세종과 같이 학문을 좋아해 많은 책을 가까이 하였으며, 천문, 역수, 산술, 서예 등에도 뛰어났다. 그는 20여 년간 資善堂에서 세자시절을 보내면서 성리학에 관련된 책을 읽지 않은 것이 없었다. 당시 자선당은 집현전의 서연관 10명이 세자와 독서내용을 토론한 장소로도 유명하다.<sup>17)</sup> 또한 그는 뛰어난 독서력을 바탕으로 『동국병감』, 『고려사』, 『고려사절요』, 『대학연의주석』 등을 편찬하여 조선 시대의 문화를 정리하는데 공을 세운 왕으로 평가받고 있다.

문종이 경연제도를 재정비하여 처음으로 경연에 나가서 독서 한 때는 즉위한 지 6개월만인 8월 11일이다. 대체적으로 왕위에 오르면 유가경전 중에 『대학연의』<sup>18)</sup>를 먼저 읽은 것이 상례인데 문종은 『近思錄』으로 경연을 시작하였다. 그 이유는 세자시절에 이미 『대학연의』는 완독하였으므로 급할 것이 없었던 것으로 판단할 수 있으며, 또한 『근사록』은 宋代에 주희, 여조검 등이 여러 유학자들의 문집에서 정수를 뽑아 엮은 성리학의 기본 이론서로 일상생활의

16) 朝鮮王朝實錄. 文宗 2年 5月 癸丑(21日) 권13. 책6. p.492.

17) 慵齋叢話, “古東宮在景福宮, 卽大內東也, 上爲世子二十餘年, 御此宮, 書筵侍講之處爲資善堂, 受朝百官之處爲繼照堂, 揀朝官賢而有名者, 爲詹事, 集賢殿十人爲經筵, 十人爲書筵.” 자선당은 세자가 20여년간 집현전의 서연관과 독서 장소로 사용되다가 세종 23년에 자선당에서 세자빈 2명이 생이별하고, 1명이 사별하였다하여 별도로 궁을 마련한 뒤 세자의 거처를 옮기게 하였다. 그 후 단종 즉위년에 현덕황후 신주를 봉안하면서 경회전으로 개명되었다.

18) 大學衍義: 宋의 眞德秀가 대학의 사대강령과 팔조목을 여러 경서를 참고하고 역사적인 사실 등을 들어 부연설명하여 편찬한 성리학의 기본서로 43권이다. 세종 때 李石亨이 대학연의가 방대한 점을 들어 이를 요약하여 大學衍義輯略 3권 7책을 편찬하였다.

규범에서부터 학문하는 법, 정치하는 방법 등이 망라되어 있으므로 修己治人에는 필수적인 책으로 여겼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문종은 즉위년(1450) 12월 중순경에 『近思錄』을 완독한 뒤 어떤 책을 읽어야 할지 결정하지 못하고 同知經筵事 安完慶(?-1453)<sup>19)</sup>과 상의하였다. 당시 안완경은 祖宗朝의 법률체계를 세우기 위해서는 『元六典』 『續六典』등을 읽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문종은 세자시절에 이미 그 책들을 읽었고, 또한 경서가 아니라 하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였다.<sup>20)</sup> 물론 경연에서는 경서만 강독하는 것이 선례이지만 세종의 경우는 경연에서 『六典』을 강독한 적이 있다.<sup>21)</sup> 문종도 경연에서 경서만 읽는다는 것을 잘 알고 있으면서 그가 읽고 싶어 했던 책은 법률서가 아닌 兵書였다. 그는 병서가 문장의 뜻이 어려운 곳이 많긴 하지만 경연에서 경연관들과 강론한다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거라는 판단 하에 그 책을 읽을 수 있도록 경연관들에게 부탁하였다. 그러나 안완경, 정창손 등의 반대로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다시 문종은 교지를 작성하여 집현전에서 병서를 대출하려했으나 집현전에서도 병서는 奇謀秘計의 책이므로 왕이 읽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다. 결국 문종은 병서를 읽지 못하고 이들이 추천한 四書와 五經, 『大學衍義』, 『綱目』, 『宋鑑』, 『名臣言行錄』 중에서 『大學衍義』를 선정하였다. 즉위년(1450) 12월 17일부터 『大學衍義』를 강독하기 시작하여 다음 해인 7월초에 강독을 모두 마쳤다. 강독을 마친 문종은 『大學衍義』가 임금에게 귀감이 될 뿐만 아니라 대신이나 종친들이 몰라서는 안 되는 책이라는 것을 깨닫고 최항(崔恒; 1409-1474)<sup>22)</sup>에게 주석을 가하도록 하여 세자와 종친을 가르치는데 사용하도록 하였다.<sup>23)</sup> 동년 9월 1일부터는 『大學』을 28일부터는 『論語』, 11월 26일부터는 『孟子』를 읽었다. 그러나 아쉽게도 그는 『孟子』를 완독하지 못하고

19) 安完慶: 1423년(세종 5) 식년문과에 급제, 1436(세종 18) 집현전 직제학으로 문과 중시에 급제, 그 후 병조참의, 형조참관을 거쳐 1453(단종 1) 충청도 관찰사가 되었으나 계유정난 때 안평대군 일파로 몰려 사사당함.

20) 朝鮮王朝實錄. 文宗 卽位年 11月 辛酉(21日) 권4. 책6. p.318.

21) 朝鮮王朝實錄. 世宗 13年 10月 庚申(29日) 권54. 책3. p.352.

22) 崔恒: 1434년(세종 16) 알성문과 급제, 집현전 부수찬, 부제학, 영의정 역임, 『용비어천가』 『동국정운』, 『훈민정음해례』, 『세종실록』, 『문종실록』, 『경국대전』, 『예종실록』 편찬 참여

23) 朝鮮王朝實錄. 文宗 1年 7月 戊申(12日) 권8. 책6. p.410.

왕위에 오른 지 2년 3개월 만에 39세의 일기로 세상을 떠났다.

문종은 왕위에 오른 뒤 거의 매일 경연을 열었으며, 설날에는 경연관들에게 3일간 휴가를 주기도 하였다.<sup>24)</sup> 그는 세자시절에 『四書』·『五經』·『左傳』·『大學衍義』를 4, 5번 반복해서 읽었고, 『綱目』·『宋鑑』 등의 서적까지도 읽지 않은 것이 없었다. 또 한가로울 때 諸史와 子集도 역시 모두 두루 열람하였으며, 性理學에도 연구가 깊었다.

문종이 집권기간에 경연관들과 독서토론한 회수는 <表 2>에서 보듯이 집권 2년 3개월(재위기간: 1450년 2월-1452년 5월) 만에 총 219회의 독서토론을 하였다.

<表 2> 文宗의 讀書討論 日誌

讀書討論 年/月/日	讀書資料	經筵官	回數	其他
即位年/8月/11,12,22-29	近思錄	金宗瑞	10	
9月 1, 2, 4, 5, 7, 8, 12, 17, 18			8	
10月 11,13,16-21, 23,26			10	
11月 1,3,4,5,11,12,13,15,16,17,18,21-23, 29		安完慶	15	
12月 1,2,4,5,6,8,9,13, 16				
17일,19,22,23,24, 26, 28, 29	大學衍義		17	
1年(1451) 1月 1-3日				休暇
1月 4, 9-13, 17, 19-23, 25			13	
2月 1-4, 18-21, 27			9	
3月 6, 8,9, 12, 13, 15-18, 20-22, 25			13	
4月 1, 12, 13, 15, 16, 19-25			12	
5月 3, 5-9, 11, 15, 16, 19, 22, 25, 27-29			15	
6月 1-5, 7,9,11-13,15-22, 26			19	
7月 1-5, 11,12,20,21,28			10	
8月 27, 29			2	
9月 1, 3-6, 8,15,17,18,21,28,29	大學, 論語		11	論語(28日)
10月 1, 2, 4, 8-13, 16, 20-28			19	
11月 1, 3,5,8-12, 24-29	孟子		19	
2年(1452) 2月 6,7,19-21			5	
3月 1-4, 7, 13, 16,19, 20,28			10	
4月 14, 22			2	
總 讀書討論 回數			219回	

24) 朝鮮王朝實錄. 文宗 1年 1月 辛丑(1日) 권5. 책6. p.338.

이 중 집권 1년(1451)에 142회의 경연회수를 보였다. 세종이 가장 많은 독서 토론을 한 해는 세종 5년(1423)으로 당시 총 206회의 독서토론을 실시하였는데,<sup>25)</sup> 문종과 비교해 보면 많은 차이를 보이지만 문종의 경우는 건강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그 정도의 독서토론은 역대 왕들 중 가장 좋은 실적이다. 이는 곧 문종도 세종 못지않은 독서가임을 알 수 있는 근거이기도 하다. 그 후 건강이 더욱 악화되어 경연의 회수는 점차적으로 감소되어 매월 10회 이상씩 독서 토론의 면모를 보였으나 1년(1451) 12월과 2년(1452) 1월에는 전혀 독서를 하지 못하였다. 그 뒤 2월에 5회, 3월에 10회, 4월에 2회를 마지막으로 독서하고 다음 달 5월에 세상을 떠났다. 당시 경연에 참여한 경연관들은 知經筵事 金宗瑞, 鄭麟趾, 同知經筵事 安完慶, 李思哲, 左司諫 崔恒, 右司諫 任孝仁, 檢討官 河緯地, 成三問, 副檢討官 李芮, 參贊官 李季甸, 鄭昌孫, 鄭而漢, 知司諫院事 洪元用, 司經 윤기건(尹起 日+犬), 尹起畝, 尹子雲 등이었다.

### 3.1.2 文宗의 讀書討論

문종은 기나긴 세자시절을 보내면서 資善堂에서 책을 읽고 서연관과 토론했던 습관이 즉위 후에도 계속되었다. 집현전 학사 10명을 경연관으로 임명하여 이들이 윤번으로 돌아가며 문종과 책의 내용에 대해 토론하면서 정치현실을 논하였다. 경연관들은 경연에 들어오기 전에 임금과 읽어야 할 분야를 미리 연구하고 토론하여 여론이 결집된 상태에서 경연에 참여한다. 문종도 경연관들에게는 책을 읽고 의문점이 있으면 숨김없이 토론하고 연구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어느 날 경연관들이 강독만 하고 나가자 즉시 문종은 승정원에 명을 내리기를, “내가 일찍이 經筵官에게 명하여 經書를 進講할 때에 의심나는 곳이 있으면 마땅히 토론·강구하여 숨김없이 진술하게 하였는데, 이제 이와 같이 아니하니 승정 원에서는 다시 경연관에게 曉諭하라.”<sup>26)</sup>하였다. 경연관들이 책의 내용을 연구하지

25) 金重權, “朝鮮 太祖·世宗年間 經筵에서의 讀書討論 考察” 『書誌學研究』 제27 집(2004.6), p.281-308.

26) 朝鮮王朝實錄. 文宗 1年 2月 丙申(27日) 권6, 책6, p.362.

않고 진강만 하는 자세가 마땅치 않았던 것이다. 그가 초기에 『近思錄』을 읽으면서 김종서와 토론한 내용 일부를 <表>로 보면 다음과 같다

<表 3-1> 文宗의 讀書討論 內容

年月日	文宗 卽位年(1450) 8月 11日 經筵
讀書資料	近思錄
主題	
經筵官	知經筵事 金宗瑞
討論內容	<p>金宗瑞: 마음이란 것은 一身의 主宰이고, 萬事의 근본이니 마음이 진실로 바르지 못하면 만사가 틀리게 되는데, 하물며 君主는 億兆의 위에 자리하고 있으면서 庶政 萬機를 한 몸으로 統攝하게 되니, 그 마음을 먼저 바로잡아 정치하는 근원을 맡게 하지 않겠습니까? 이 글에 기재된 것은 모두가 마음을 바로잡고 몸을 修鍊하는 요령이므로 군주가 마땅히 먼저 講讀한 것입니다. 臣이 근일에 殿下께서 이 글을 講讀하시려고 한다는 말을 듣고 사사로이 기뻐하고 있습니다. 임금의 옮겨 여기었다 * 글을 강독하다가 ‘聖人이 中正 仁義로써 正心 하고서 主靜 한다.’는 대목에서 문중: 무엇을 일컫는 것인가?</p> <p>金宗瑞: 中이란 것은 치우치지도 않고 기울지도 않고 지나침과 미치지 못함이 없다는 명칭이고, 正이란 것은 지극히 공평하여 조금도 私心이 없음을 이룸이니 正도 또한 中일 뿐입니다. 지금 田制의 일로써 말하더라도 中正을 얻지 못한 것이 많습니다 殿下께서는 田制가 이미 바로 되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오히려 바로 되지 못했는가를 염려해야 할 것입니다.</p> <p>문중: 대체 이와 같은 까닭으로 매년 농사의 풍년과 흉년을 보아서 등급을 감했던 것이다.</p> <p>*無妄을 誠이라 이른다 는 대목에서</p> <p>문중: 무엇을 일컫는 것인가?</p> <p>김종서: 無妄이란 것은 實理의 自然으로써 조금의 僞妄도 없는 것입니다. 하늘과 聖人은 純一할 뿐이니 深遠하여 다함이 없는 것은 하늘의 道이고, 純一하여 다함이 없는 것은 聖人의 道입니다. 天道는 深遠하여 다함이 없으므로, 眞實하여 허위가 없게 되니, 그런 까닭으로 봄이 간 후에는 여름이 오고, 여름이 간 후에는 가을이 오고, 가을이 간 후에는 겨울이 와서 四時가 運行하여 百物이 生養하여 조그마한 틀림도 없게 됩니다. 聖人도 天道처럼 純一하여 또한 다함이 없으니, 그런 까닭으로 公平正大함으로써 邪思와 妄念이 어디로부터 들어올 데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다만 人道의 마땅히 할 일을 다 하여 異端의 邪說에 迷惑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佛道는 虛無 寂滅하여 세상을 떠나고 時俗과 隔離되어 倫理를 멀리 하면서 진실하지 않으니, 그런 까닭으로 옳은 듯하면서도 그릇되어 그 末流의 폐단이 장차 혹시 아비도 없고 임금도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p> <p>문중: 佛道는 진실로 人間의 일은 아닌 것이다.</p>
出處	文宗實錄 卷3 卽位年 8月 11日(壬午) 6 輯p.270.

<表 3-1>의 토론 내용은 문종이 질문만하고 김종서가 그 의미를 설명하는 형식이지만, 김종서가 책의 내용에 준하여 전제제도의 잘못됨을 지적하자 문종이 그 이유를 설명하고, 또한 문종에게 성리학과 불도의 차이를 들어 불도의 폐단을 설명한 결과 문종이 수긍하는 내용이다.

<表 3-2> 文宗의 讀書討論 內容

年月日	文宗 1年(1451) 4月 15日 經筵
讀書資料	大學衍義
主題	夫差가 伍子胥를 放殺하는 대목
經筵官	檢討官 成三問
討論內容	<p>문종: 내가 일찍이 史書를 읽었으나, 다만 越王이 吳나라에 賈結하여 그 나라를 보전하였다는 것을 보았을 뿐이고, 苒여의  항복을 받아들여 신하로 삼았다는 말은 듣지 못하였는데, 이제 集賢殿이 올린 『兵要草』에  항복을 받아들였다는 말이 있으니 무엇에 근거한 바인가?</p> <p>成三問: 신이 『左傳』·『國語』를 상고할 적에는 이 말이 없었으나, 다만 『吳越春秋』에 있었습니다.</p> <p>문종: 이 글은 허황되고 과장되어서 사실이 아니므로 그대로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미 『병요초』에서 삭제하였다.</p>
出處	文宗實錄 卷7 1年 4月 15日(癸未) 6 輯p.376.

문종 1년(1451) 4월 15일에 실시한 『大學衍義』의 토론 내용<표 3-2>에 있어서는 집현전에서 올린 『兵要草』 중에 일부 내용의 출처를 질문하자 성삼문이 『吳越春秋』에 그 사실이 나온다는 것을 제시하고 있다.

<表 3-3>은 하위지와외의 담론에서 당 태종의 인간성을 평가하는 내용과 절제사의 급료에 대해서 상의한 내용이며, <表 3-4>는 문종 1년 5월 9일에 『大學衍義』의 칠월시를 읽는 부분에서 정인지가 선왕인 태종이 농사를 권장하기 위해 『籍田儀注』를 편찬하고 농민을 위로하셨듯이 문종도 태종의 뜻을 이어 받아 몸소 농사일을 권장하도록 권유한 내용이다.

<表 3-3> 文宗의 讀書討論 內容

年月日	文宗 1年(1451) 4月 20日 經筵
讀書資料	大學衍義
主題	唐나라 太宗이 魏徵을 대우한 두 가지 일
經筵官	檢討官 河緯地
討論內容	<p>河緯地: 태종이 전에는 彦博을 시켜서 按驗하였으니, 매우 明哲하였습니다 그 후에 참소를 받아서 婚姻을 파하고, 碑石을 잃어 버렸으니 侯君集 등을 천거한 것, 또는 저수량에게 諫草를 보였다는 것을 意中에 두었기 때문이었습니다.</p> <p>문중: 나도 모르겠다.</p> <p>河緯地: 무릇 사람이 천거할 즈음에 우연히 과실이 있는 것이니 이를 노할 것까지는 없다면 차라리 諫草를 보인 것으로 노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뒷날에 太宗이 말하기를 “魏徵이 매양 조정에서 나를 옥보였으니, 모름지기 이 촌 늙은이를 죽이리라.” 하였으니, 옥하는 말치고는 깊이 그를 미워한 것입니다.</p> <p>문중: 그것도 알 수 없는 일이다. 위징의 성품이 본디 곧으니, 비록 실제로 간조를 보였더라도 책망할 것은 없다.</p> <p>하위지: 옛사람에는 간조를 불살라서 비록 자손이라도 볼 수 없게 한 사람이 있었으니 위징이 간조를 보인 것은 역시 과실이 아니겠습니까?</p> <p>문중: 무방하였다. 비록 간조를 불사르는 아름다움만은 못하나 어찌 큰 과실이겠는가?</p> <p>하위지: 태종이 참으로 간조를 보인 것으로 노하였다면 어진 임금이 아닙니다. 이제 두 가지 일을 보면 明哲함과 暗愚함이 매우 분간됩니다.</p> <p>문중: 태종은 어진 임금인데, 어찌 그 일로 가벼이 評議하겠는가?</p> <p>하위지: 대저 임금은 흔히 잘못을 文飾합니다. 태종이 遼東을 쳐서 그리 크게 패한 것이 아니니, 잘못을 문饰할 수 있을 듯한데도 누우치는 말을 하였으니, 이것이 그들 어진 임금이라 하는 까닭입니다.</p> <p>문중: 좋은 말이다.</p> <p>하위지: 下三道의 節制使는 일이 없는 데에 있으면서 오히려 節制使의 祿을 받는데 평안도 절제사는 防戍의 중한 곳에 있는데도, 도리어 衙祿을 받으니, 참으로 흠결이 있는 法典입니다. 世宗께서 일찍이 명하여 威吉道都節制使 金允諤와 평안도 도절제사 金孝誠에게 절제사의 녹을 주게 하셨음은 어찌 이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청컨대 恒規로 삼아서 주게 하소서.</p> <p>문중: 알았다.</p>
出處	文宗實錄 卷7 1年 4月 20日(戊子) 6 輯p.378.

<表 3-4> 文宗의 讀書討論 內容

年月日	文宗 1年(1451) 5月 6日 經筵
讀書資料	大學衍義
主題	七月詩를 논하는 대목

經筵官	同知經筵事 鄭麟趾
討論內容	鄭麟趾: 周나라의 后稷이 農事로 開國하였습니다. 우리 太宗께서도 농사에 유의하여 매번 늙은 농부에게 자문을 구하시고, 또 『籍田儀注』를 저술하여 몸소 밭갈이를 하려 하시다가 수행하지 못하셨습니다. 바라건대 전하께서는 몸소 직전을 가시어 농사를 권장하소서. 문종: 그렇게 하겠다.
出處	文宗實錄 卷7. 1年 5月 6日(癸卯) (輯. p.358)

<表 3-4> 文宗의 讀書討論 內容

年月日	文宗 1年(1451) 5月 7日 經筵
讀書資料	大學衍義
主題	여름의 무더운 비와 겨울의 추위에 서민이 원망한다는 부분
經筵官	檢討官 河緯地
討論內容	<p>문종: 탄식하면서, 오직 옛적에만 그러할 뿐 아니라, 오늘날의 일도 역시 이러하다. 어루만져 편안하게 하는 정책을 시행하지 않는 것은 아니나, 백성이 혜택을 받지 못하니, 어떻게 닦아서 백성에게 實德을 베풀 것인가</p> <p>河緯地: 무릇 백성의 요역·賦斂이 다 田地에서 나오므로, 四民중에서 오직 농민이 가장 勞苦하니, 참으로 矜恤할 만합니다. 일꾼을 덜어 주어 일꾼의 은혜를 받게 함이 마땅합니다. 漢나라의 文帝가 海內를 풍족하게 만든 것은 능히 煩擾하지 못하게 하였을 뿐인데, 근년에 민간의 요역이 煩重하니, 신은 이를 아뢰기를 청합니다. 民生이 오로지 義倉만을 바라고 있는데, 오늘날의 守畝는 다 收斂하지 못할까 염려하여 때맞추어 흠어 주지 않으므로, 백성이 이를 매우 답답히 여기니, 청컨대 때에 미처서 斂散하여 民命을 살리게 하소서. 옛사람이 이르기를, 풍년이 흉년만 못하다 하였거니와, 지금 곡식이 조금 풍년 들면 문득 성 쌓는 일을 일으켜서 식량을 가지고 왕래하여 걸핏하면 몇 달을 지내게 되므로 백성이 매우 노곤하니, 청컨대 이제부터는 비록 풍년이 들더라도, 한 해를 넘겨서 성을 쌓아 백성의 부담을 쉬게 하소서. 下三漕의 각 고을에서 貢納하는 乾獐鹿은 일찍이 이미 過半을 건넌하였으나, 노루 사슴이 날로 드물어져 가므로, 생산되지 않는 고을에서는 민간에서 구하니, 그 폐단이 작지 않습니다. 청컨대 생산되지 않는 곳을 다시 살피서 講武場에서 잡은 노루 사슴으로 대신하여 민폐를 덜게 하소서. 민생의 休戚은 실로 수령의 어질고 어질지 못함에 달려 있습니다. 평안도에는 근래 적의 聲息으로 말미암아 武才가 있는 자를 뽑아서 수령으로 삼았는데, 그 사람이 다만 적을 방어하는 것만을 일삼고 도리어 백성을 편안하게 하는 것을 분수 밖의 일로 여겨서 어루만지고 편안하게 하는 데 있어서 마땅함을 잃어 백성이 편히 살지 못합니다. 이로움을 좃고 해로움을 피하는 것은 백성의 常情이며, 평안도의 경계가 중국과 잇닿아 東八站 땅에 백성이 퍼져 살므로, 물래 저 편을 좃기가 어렵지 않으니, 참으로 염려됩니다. 청컨대 殿殿의 즈음에 戶口의 많고 적음과 田野의 거칠고 열림을 살피서 旣點한다면, 모두 백성을 편안하게 하기에 힘써 스스로 承宣의 책임을 저버리지 않을 것입니다.(중략)</p> <p>문종: 나도 貢物의 폐단을 알아서, 이미 有司로 하여금 마련[磨勘]하게 하였으나,</p>

	지금 아직 마련되지 않았다. 그 포석 따위도 이미 수를 줄였는데, 다시 줄이고자 한다. 북방의 방어가 가장 긴요하니, 무재를 뽑아서 수령으로 삼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반드시 백성을 다스릴 수 있는 자를 가려서 쓰는 것이고, 오로지 武夫를 쓰는 것은 아니다. 兩界의 수령을 조치할 방책은 이미 의논하게 하였지만, 내가 다시 商量하였다
出處	文宗實錄 卷7 1年 5月 7日(甲辰) 6 輯 p.386.

<表 3-4>는 『대학연의』를 읽으면서 책의 내용이 당시 백성들의 처지와 비슷함을 한탄하여 어떻게 하면 백성들이 편안하게 살 수 있을까 하는 대책을 논의한 중에 하위지가 그 방안을 제시한 내용이다.

<表 3-5> 文宗의 讀書討論 內容

年月日	文宗 1年(1451) 9月 28日 經筵
讀書資料	論語
主題	더하기도 하고 덜기도 하는 것은 때와 더불어 접합하게 한다.
經筵官	知經筵 金宗瑞
討論內容	<p>金宗瑞: 이루어진 법을 경솔히 고쳐서는 안된다고 하나, 이 글을 보면 소소한 損益(손익) 마땅히 때와 더불어 적합하게 하는 것이 옳습니다. 다만 大體는 모름지기 옛 것에 의존하여야 할 것입니다. 근일에 10개의 司를 합하여 5개의 사로 하였는데, 이루어 놓은 법을 경솔히 고쳐서는 안된다고 많이들 말하였으나, 兩界에 赴防하는 군사가 몹시 적음으로 인하여 한갓 12개 사의 명칭만 있고 그 실상이 없어서 합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p> <p>左議政: 五司와 領率을 실시한 뒤로부터 군가가 整齊된 것은 반드시 본 것이 있어서 그러할 것입니다.</p> <p>문종: 때에 따라 늘리고 줄이는 것은 그렇게 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일에 마땅히 고칠 것이 있으면 비록 이루어진 법이라 할지라도 역시 부득이 變(변)해야만 한다. 또 예전에는 10司였던 것을 갑자년·을축년 사이에 2司를 더하였다가, 이제 또 5司를 감한 것은 법을 폐하는 것이 아니다. 이에 앞서 또한 12司가 있었는데, 10司로 감한 것은 이 모두가 시대에 적절한 것이다.</p>
出處	文宗實錄 卷9 1年 9月 28日(癸亥) 6 輯p.440.

<表 3-5>는 문종 1년 9월 28일에 경연에서 『논어』를 읽다가 ‘가감하는 것은 시대에 알맞게 한다.’는 부분에서 당시 10司였던 것을 통합하여 5司로 한 것은 시기에 적절하다는 논의이다.

<表 3-6> 文宗의 讀書討論 內容

年月日	文宗 1年(1451) 11月 2日 經筵
讀書資料	孟子
主題	文王이 靈臺를 짓기 시작하였다는 대목
經筵官	侍講官 朴彭年
討論內容	<p>문종: 문왕의 못은 항상 새와 짐승을 기르던 곳이었는데?</p> <p>朴彭年: 국가에 臺가 있는 것은 분침을 바라보며 災祥을 살피려는 理由에서입니다. 대 밑에 동산이 있고 동산 속에 못이 있는데, 못은 항상 새나 짐승을 기르던 곳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사냥을 금지하는 명령은 강무장에는 어쩔 수 없지만, 都邑 근방의 땅에 조그마한 川澤에 이르기까지도 또한 금지하도록 하니, 이것은 나라에 無益합니다. 마땅히 禁畝를 늦추어 백성과 땅을 같이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 원유는 한가하게 비워두면 좋지 못하니, 만약 없애버릴 곳이 있으면 생략하는 것이 편하겠습니까.</p> <p>문종: 살곳이(箭串)안은 바로 講武하는 땅이니, 禁하지 않으면 한 가지 물건도 없을 것이다. 그 나머지 川澤은 금지할 필요가 없다. 원유의 일은 말하는 자가 많아서 내가 줄이려 하지만, 그러나 各道에서 祭享에 貢賦하는 것은 이미 일찍이 면제하였으니, 오직 원유에서 짐승을 잡는 것으로 대신하면 된다. 너무 줄일 수는 없고 또 강무하는 일은 폐지할 수도 없는 것이니, 그 중에서 산천이 險阻하여 강무에 어려운 곳은 내가 마땅히 살펴서 처리하겠다.</p>
出處	文宗實錄 卷9 1年 11月 2日 6 輯p.457.

<表 3-6>은 문종 1년 11월 26일에 박팽년과 맹자의 文王이 ‘靈臺를 짓기 시작하였다.’는 부분을 읽다가 강무장에서의 사냥은 금하는 것이 좋으나 천택에서의 사냥은 금하지 말고 백성들이 자유롭게 사용하도록 하자는 건의를 문종이 받아들이는 내용이다.

이상과 같이 문종은 책을 읽기만 하는 자세를 벗어나 읽고 반드시 토론을 거쳐 실천하는 자세를 보였다. 다시 말하면 문종의 독서토론 내용은 이론과 실제를 겸비한 것으로 그 결과를 정치에 반영하려고 했던 것이다. 이는 곧 성리학 관계 서적을 널리 섭렵한 문종이 유학의 본질을 찾고 이를 현실에 적용시키려는 의도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조선 후기에나 볼 수 있는 실학의 시발점이 아닌가 한다.

## 3.2 端宗의 讀書行態 및 讀書討論

### 3.2.1 端宗의 讀書行態

端宗(1452-1455)은 1452년 5월 18일 12세의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올라 김종서, 황보인, 수양대군 등의 정치적인 혼란 속에 불운의 생을 마감한 왕으로써 독서의 기회를 별로 갖지 못하였다. 그가 처음으로 책을 접하게 된 것은 7세 되던 해에 서연에서 師傅인 하연(河演; 1376-1453)<sup>27)</sup> 등과 『小學』을 읽기 시작하면서부터이다.<sup>28)</sup>

단종은 즉위 초에 조강, 주장, 석강으로 나누어 매일 3회씩 열심히 경연관들과 독서하는 자세를 보였다. 독서방법은 집현전의 경연관 중 시독관이 강독하면 단종은 目讀으로 대응하였다. 어려운 문구는 경연관들이 해석하고 설명하면서 읽어 가는 방식이었다. 당시 경연에 참여한 자들은 영경연(領經筵) 정인지(鄭麟趾 1396-1478), 한확(韓確 1403-1456), 황보인(皇甫仁 ?-1453), 지경연 허후(許詔 ?-1453), 박팽년(朴彭年; 1417-1456), 하위지(河緯地; 1387-1456), 성삼문(成三問; 1418-1456), 정창손(鄭昌孫 1402-1487), 양성지(梁誠之 1414-1482), 이사철(李思哲; 1405-1456), 김구(金鉤; ?-1462) 등으로 이들은 교대로 경연에 참여하였으며, 영경연사는 문종 때부터 1개월에 2번씩 참관자격이 주어졌으나 단종 때 3일에 한 번씩 참여하도록 하였다. 시강관은 경연에서 강독을 담당하고, 그 밖에 사간원의 관리나 사관이 참여하기도 하였다.

단종의 경우 선왕들과는 달리 서연에서 독서경험은 거의 없이 왕이 되었으므로 열심히 독서해서 제왕의 길을 배우려고 노력했다. 그러나 그는 개인적인 사정이

27) 河演: 自宗의 아들이며, 鄭夢周의 문인이다. 본관은 晉州 자는 淵亮 호는 敬齋·新稭翁이며, 自宗의 아들. 太祖 5년(1396)에 奉常寺錄事를 거쳐 直藝文春秋館·修撰官·執義·同副代言·예조 참관 등을 역임하였고, 세종 5년(1423) 대사헌으로 있을 때 불교의 7개 宗派를 禪·敎양종으로 통합하고 혁파된 사원의 토지와 노비를 국가에 환수하게 하였으며, 동왕 31년에 우의정·좌의정을 거쳐 영의정을 역임했다. 편서로는 慶尙道地理志와 晉陽聯藁가 있다.

28) 朝鮮王朝實錄. 文宗 卽位年 9月 戊午(17日) 권3. 책6. p.282.

나 대내외적인 사건들로 인하여 독서환경이 조성되지 못했던 것이다. 실제로 12살이면 한 참 뛰어 놀기 좋은 시절이며, 요즈음 같으면 초등학교 5학년정도 인데 단종에게 제왕의 길을 가르친다는 목적으로 경연관들이 교대로 『論語』, 『孟子』, 『中庸』을 읽도록 권유한 자체가 독서에 싫증을 느낄 수 있는 시기이기도 하다. 또한 연령이나 독서수준에 맞지 않는 독서자료 선정의 적절성문제에도 단종의 독서경험으로서는 쉽게 이해될 수 없는 부분이 많았을 것으로 판단된다.

독서할 수 있는 여건이 좋아야 독서의 기회가 많아지고 책에 빠지면서 아니면 따지면서 읽을 수 있는 기회도 늘어나는 것이다. 그런데 단종은 그렇지 못하였다. 그 원인을 살펴보면

첫째, 나이가 어려 독서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한 원인도 있었겠지만 한 참 뛰어놀아야할 시기에 3회로 나누어 경연관들과 강제성 독서를 한다는 것도 원인이 있겠다.

둘째, 단종은 신병상의 이유로도 독서를 중지하기도 하였다. 단종 즉위년(1452) 9월 23일 단종이 병이 나자 金宗瑞(1390-1453)·李穡)·許誥가 문안을 와서 ‘세자는 살이 많으므로 항상 內庭에서 걸음을 익히도록 하고, 後園에서 말을 타게 하며, 매 사냥하는 데 가서 血氣를 통하게 하라’는 세종의 얘기를 들려주었다. 그리고 이들은 정상께서 항상 깊은 宮中에 계시고 일찍이 운동을 아니 하셨기 때문에 한 번 몸을 움직여 수고로우면 병환이 나기 쉬우니 마땅히 宮內에서 散步도 하시고, 수시로 말 타기도 하여 힘을 기르도록 권유하였으며, 수양대군도 경연 3회가 많으므로 건강을 위해 1회를 줄이도록 권유한 바 있다.<sup>29)</sup>

본 내용을 보면 단종은 보통체격보다는 비대하므로 승마, 사냥, 산보 등을 통해 건강을 지키면서 독서하도록 신하들이 권유한 것으로 보인다. 나이가 어려서 치아에도 문제가 있었는지 단종은 치통을 호소하며 경연을 중지한 적도 있다. 즉위년(1452) 10월 26일에 경연을 자주 열지 않으므로 허후가 그 연유를 질문한 답변에서 알 수 있다.<sup>30)</sup> 또한 단종실록 1년(1453) 4월 25일조에 하위지에

29) 朝鮮王朝實錄. 端宗 卽位年 9月 壬子(23日) 권3. 책6. p.538.

30) 朝鮮王朝實錄. 端宗 卽位年 10月 甲寅(26日) 권4. 책6. p.550.

게 사직서를 돌려주면서 목구멍에 통증이 있기 때문에 경연에 나가지 못한다는 기록도 보인다.<sup>31)</sup> 이와 같이 신체적인 영향으로 인하여 독서를 중단한 경우가 많았으며, 하루에 3회씩 실시해야 할 독서를 한때만 하고 나머지는 한가롭게 보낸 시간도 많았다. 이를 지켜본 사헌부에서는 단종의 독서부진을 보고만 있을 수 없었던지 단종 1년(1453) 9월 13일에 大司憲 朴仲林 등은 진강의 회수를 늘려서라도 『書經』을 읽어서 정치하는 방도를 강구하라는 상소를 올리기도 하였다. 그 내용을 보면,

“(진택 전하께서는 즉위한 이래로 날마다 經筵에 나아가 聖學을 講論하고 治道를 물어서 힘써 다스리기를 도모하는 것이 가히 지극하다고 이르셨습니다. 그러나 전하께서는 이제 바야흐로 어리시고 德을 잡음이 굳지 못하여 善惡의 기틀이 심히 두렵습니다. 하루 동안에 경연에 납시기는 한때뿐이고 한가로울 때가 적지 아니하니, 신 등은 좌우 近習이 혹 의롭지 않은 일로 인도하여 잘못된 기틀을 만들까 두렵고 염려스럽습니다. 옹드려 바라건대, 전하께서는 날마다 덕을 새롭게 하고 또 새롭게 하며, 더욱 進講하는 회수를 더하여 한결같은 생각을 처음에서 끝까지 항상 학문에 두고, 항상 어진 사대부와 더불어 講學하는 여가에, 겸하여 民生의 休戚과 정치의 得失을 물어서 간사한 무리가 혹시라도 틈을 타지 못하게 하면 지극한 정치를 가히 기약할 것입니다.

二帝三王의 천하를 다스리는 大經과 大法이 모두 『書經』에 실려 있는데 임금과 신하 사이에 都兪의 氣像이 二典, 三謀에 더욱 뚜렷이 나타났습니다. 전하께서는 『大學』과 『論語』를 進講하여, 나라를 다스리는 律令과 格例는 비록 이미 통하였을지라도, 이제 삼왕이 행한 일의 자취를 급급히 講究하여 마음으로 깨달아 알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신 등은 옹드려 바라건대, 경연에서 진강하는 여가에 『尙書』 한 節을 검해서 講하여 帝王이 마음 놓고 정치하는 要旨를 구해야 할 것입니다.”<sup>32)</sup>

내용상으로 보아 경연에 가는 것은 한때뿐이고 한가로운 시간이 많으니 경연회수를 늘려서라도 정구과목 외에 『尙書』를 읽도록 권유한 것이다. 즉, 사헌부에서는 堯, 舜의 정치와 夏의 禹王, 殷의 湯王, 周의 文王과 武王 등이 천하를 다스렸던 원리를 터득하도록 하기 위해 이 책을 추천하였으나 단종은 끝내 읽지 못했다.

31) 朝鮮王朝實錄. 端宗 1年 4月 壬子(25日) 권6. 책6. p.583.

32) 朝鮮王朝實錄. 端宗 1年 9月 丙寅(13日) 권7. 책6. p.613.

셋째, 당시 단종이 유일하게 즐기는 것은 궁 안에서는 활 쏘기 구경, 궁 밖에 나가서는 사냥을 구경하는 것이었다. 단종 2년(1454) 4월 18일에는 경연에서 하위 지가 활쏘기 구경은 대신과 함께하고 환관과는 하지 말도록 했으며,<sup>33)</sup> 동년 5월 4일에 박팽년도 활쏘기 구경의 부당함을 다음과 같이 아뢰었다.

“임금은 崇高하고 富貴하므로 한 가지 일도 근심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옛사람이 이르기를, ‘憂患에서 살면 安락하게 죽고, 부귀를 밟고 편안하여 節度가 없으면 멸망의 길에 이른다.’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옛 인군은 崇高한 지위에 처해 있으면서도 마땅히 근심하고 부지런히 두려워하고 가다듬는 것으로 마음을 삼았는데, 하물며 우리 전하께서는 어린 나이로 임금의 자리를 이어받았으니, 진실로 경각이라도 편안히 즐기거나 태만하고 게을러서는 안 됩니다. 편안히 즐기는 것을 좋아하면 마침내 위태로워 망하는 데에 이르고, 근심하고 삼가는 것을 숭상하면 마침내 나라가 흥하는 데에 이르니, 어찌 두렵지 않겠습니까.”<sup>34)</sup>

이와 같이 단종이 독서는 하지 않고 觀射에만 몰두하자 신하들이 나라의 흥망을 염려하는 마음에서 조심스럽게 건의하였으나 단종은 여전히 활쏘기 구경, 사냥구경을 계속하였다. 그 것을 알고 있던 사간원에서조차 지켜볼 수 만 없었던지 동년 10월 14일에 “지금 전하께서 어리시니 자주 사냥하심은 옳지 않습니다. 아차산에서 사냥구경하신지 오래되지 않았는데 또 16일에 사냥구경을 하신다고 하니 가지마소서.”라고 직접적으로 만류했는데도 단종은 생각해보겠다는 대답뿐이었다. 이 날 수양대군은 黃孝源을 보내어 전하께서 국사의 업무가 복잡함에 하루의 세 번의 경연은 많으니 주장을 없애라는 건의를 하였다.<sup>35)</sup> 하위지, 박팽년, 사간원은 단종이 관사나, 사냥구경에 몰두하여 독서를 등한시한 것을 안타깝게 여기는 입장이었으며, 반면에 세조는 국사의 과다한 업무로 인해 건강을 해칠까하는 우려에서 주장정지를 건의한 것이었는데 속뜻은 알 수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단종은 누구의 말을 들어야할 지 쉽게 판단을 내릴 수 없는 처지였다. 숙부인 수양대군의 건의를 받아들였는지는 알 수 없지만 하루에 3회씩

33) 朝鮮王朝實錄. 端宗 2年 4月 己亥(18日) 권11. 책6. p.680.

34) 朝鮮王朝實錄. 端宗 2年 5月 甲寅(4日) 권11. 책6. p.682.

35) 朝鮮王朝實錄. 端宗 2年 10月 壬辰(14日) 권12. 책6. p.710.

경연에서의 독서는 실시되지 못하다가 이듬해인 3년 2월 13일에는 하루에 3회 씩 경연에 참여한다는 약속을 하기도 하였다.<sup>36)</sup> 그러나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다시 궁궐 밖으로 나가 사냥을 구경하곤 하자 다시 단종 3년(1455) 4월 17일에 사간원에서 조목별로 상소를 올렸다. 그 내용 중에,

“임금의 학문은 잠시라도 중단해서는 안 됩니다. 옛날에 선왕의 업적을 잘 이룩하여 태평성대를 이룬 이는, 周나라 成王만한 이가 없습니다. 성왕의 학문을 말하면 날로 성취하고 달로 진보하여 학문이 緝熙하고 光明함이 있었으니, 이른바 ‘집희(緝熙)’라는 것은 계속하여 광명해서 조금도 間斷이 없음을 이릅니다. 전하께서 세자로 계실 때는 배움을 좋아하기를 게을리 하지 않으셨고, 寶位에 오르시어 날마다 經筵에 나아가시어, 비록 춥고 덥고 비오는 날이라도 일찍이 輟講하지 않으셨으니, 名譽한 자질과 학문을 좋아하시는 정성이 天性에서 나오시어 비록 成王의 학문이라 하더라도 이보다 더할 수 없을 것입니다. 다만 근일에 郊外에 거동하시어 여러 번 경연을 멈추셨으니, 신 등은 간절히 생각하건대, 聖學의 緝熙의 功이 혹시 중간에 끊김이 있을까 두렵습니다. 앞드려 바라건대 전하께서 경연에 專心하시어 情神을 다해 講究하시되, 감히 하루라도 그치지 마시고 聖學을 독실히 하시어 高明함에 이르게 하소서.”<sup>37)</sup>

본 상소로 인하여 집현전 부제학인 하위지 등이 경연 정지의 책임을 지고 사직을 청하기도 하였지만 단종은 하위지의 사직서를 반려한 뒤 동년 5월 8일 夕講에서 하위지와 『論語』를 읽기 시작한 경우도 있다..

넷째는 정치적인 소용돌이이다. 숙부인 수양대군의 왕위찬탈의 계략으로 많은 충신들이 죽어가는 내란 중에 심리적인 불안감 때문에 독서할 겨를이 거의 없었던 것이다. 그 밖에 경연의 정지는 단종 3년 6월 삼복더위일 때는 일정기간 휴강하였다.<sup>38)</sup> 그 후 단종 영월히 경연을 열지 못하였다.

결과적으로 단종은 신병상의 이유로, 觀射나 사냥의 이유로, 정치적인 소용돌이 속에서 타의에 의해 자유로운 독서를 할 수 없었다. 신변에 위협이 몰아치고 날마다 불안하고 초조한 가운데 책이 눈에 들어올 틈이 없었던 것이다.

36) 朝鮮王朝實錄. 端宗 3年 2月 己丑(13日) 권13. 책7. p.14.

37) 朝鮮王朝實錄. 端宗 3年 4月 壬辰(17日) 권14. 책7. p.33.

38) 朝鮮王朝實錄. 端宗 3年 6月 己酉(5日) 권14. 책7. p.42.

그가 집권기간에 실시한 총경연의 회수는 기록상으로는 25회이지만 집권초기에는 매일 경연관들과 독서를 했다. 선왕들은 왕도를 바로 세운다는 일념으로 즉위하자마자 『近思錄』이나 『大學衍義』를 강독하였지만 단종은 부왕의 승하로 상례를 익히기 위해 즉위년(1452) 6월에 『家禮』를 먼저 읽었으며, 『家禮』를 마친 뒤에는 『大學衍義』가 아니라 『論語』였다. 동 9월부터 1년까지 『論語』, 2년(1454) 2월에는 『孟子』, 2년 12월부터는 『中庸』을 강독하였다. 이는 왕이 어리므로 왕도의 교육보다는 인성에 바탕을 둔 단계적인 독서체계로 보인다. 따라서 단종은 당시 경연관들과 독서토론 의미보다는 교육적인 의미가 깊다고 하겠다.

### 3.2.2 端宗의 讀書討論

경연에서 단종이 읽었던 자료는 졸곡 전에는 『家禮』의 <喪制篇>이었으며 졸곡 후인 즉위년 9월부터 『論語』, 2년 2월의 『孟子』, 동 12월 『中庸』 순이었다. 당시 단종이 읽었던 책들에 대한 토론과정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각 서명별로 몇 부분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表 4-1> 端宗의 讀書討論內容

年月日	端宗 卽位年(1452) 9月 4日 經筵
讀書資料	論語
主題	(子曰, 夷狄之有君) 不如諸夏之亡
經筵官	許詡
討論內容	단종: (오랑캐에게 군주가 있는데) 諸夏의 군주가 없는 것과는 같지 못하다는 것은 어떤 뜻인가? 허후: 대체로 君臣 상하의 禮는 오랑캐가 진실로 중국에 미치지 못하였는데, 이때 중국의 天子가 나약하고 諸侯들이 僭亂하므로 도리어 오랑캐의 임금이 있는 것과는 같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孔子가 시대의 어지러움을 근심하여 탄식한 것입니다.
出處	端宗實錄 卷3 卽位年 9月 4日(癸亥) 6 輯p.539.

상기의 내용은 『論語』 <八佾篇> 3장 5절에 나온 부분으로 허후가 단종에게 주자의 설을 들려준 것으로 보인다. 옛날에는 군신상하의 예만 보아도 오랑캐들이 중국을 따르지 못하였는데 공자시대에 있어서 중국에는 천자가 연약하고 제후들은 제멋대로 행동하여 無君主, 무질서 상태에 빠지자 공자가 개탄하여 오랑캐와 당시 중국의 현실을 비교한 내용을 설명하고, 단종에게는 군자를 가까이 하고 소인은 멀리해서 공자의 시대처럼 무군주, 무질서가 되지 않도록 나라를 잘 다스리도록 권고한 내용이다.

<表 4-2> 端宗의 讀書討論內容

年月日	端宗 卽位年 9月 7日 夕講
讀書資料	論語
主題	思無邪
經筵官	朴彭年, 朴仲孫
討論內容	단종: 思無邪란 무슨 뜻인가? 박팽년: 생각하는 바에 사사로움이 없는 것이니, 마음이 바름을 일컫는 것입니다. 마음이 이미 바르면 즉 모든 事物에서 모두 바름을 얻을 것입니다. 박중손: 마음은 한 몸의 主宰입니다. 마음이 바른 뒤에야 일이 바를 수 있습니다. 하물며 임금의 마음은 萬化의 근원이니, 바르게 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대저 임금의 마음이 바르지 아니하면서 만백성을 바르게 하려고 하면, 그 명령하는 바를 따르는 일이 드물 것입니다. 되었습니니다. 그러므로 孔子가 시대의 어지러움을 근심하여 탄식한 것입니다
出處	端宗實錄 卷3. 卽位年 9月 7日(丙寅) 6 집 p.540.

『論語』 <爲政篇> 2장 2절의 내용으로 박팽년 박중손이 단종에게 마음을 올바르게 해야 백성들도 바르게 되어 임금의 명을 어기지 않고 잘 순응하므로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다는 것을 가르친 것이다.

<表 4-3> 端宗의 讀書討論內容

年月日	端宗 1年(1453) 7月 7日 經筵
讀書資料	論語
主題	定公問, 一言而可以興邦
經筵官	朴彭年
討論內容	<p>단종: 무슨 까닭으로 한 마디 말이 나라를 흥하고 망하게 할 수 있는가?                  박팽년: 한 마디 말 사이에서 비록 갑자기 나라가 흥하고 망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할지라도, 흥하고 망하는 근원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나 한 마디 말로 나라를 흥하게 하는 것은 그 효과가 늦고, 한 마디 말로 나라를 망하게 하는 것은 그 효과가 빠릅니다. 예로부터 임금이 直言을 듣기를 즐겨하면, 허물이 있으면 반드시 들어서 言動과 정사가 모두 이치에 합당한 것입니다. 만약 임금이 오직 자기 말대로만 하고 어기지 못하게 하면, 面前에서 아첨하는 무리가 거저된 아름다움으로 마음을 즐겁게 하여 정사의 그릇됨과 사람을 쓰는 일의 잘못을 모두 들을 수가 없어서 나라의 형세가 위태로워도 임금이 알지 못하였으니, 이 어찌 한 마디 말로 나라를 망하게 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定公이 친히 聖人의 말을 듣고도 모두 몸으로 행하지 아니하였으니 애석하지 아니합니까? 三代 이후로 간언을 따르는 임금이 비록 堯舜과 같은 聖君 없었으나, 唐나라 태종도 또한 지극하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魏徵의 獻陵之對가 위장이 어찌 모르고 한 대답이겠습니까? 만약 간언을 따르지 않는 임금이었더라면 반드시 자기를 속인다고 생각하였을 것인데, 태종은 그 말을 嘉尙하게 받아들여서 즉시 명하여 臺를 헐게 하였으니 가히 賢君이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그 당시에는 쌀 한 말에 3錢이고, 바깥 대문을 닫지 아니하였으니, 貞觀 隆 거의 태평 시대를 이루었습니다. 바야흐로 이제 주상께서는 항상 충성을 다하고 直言을 하는 선비들과 더불어 治世의 도를 강론하시고, 조종의 成憲을 어지럽히고 고치는 일이 없게 하시면, 참소하고 아첨하는 사람이 그 간사함을 드러내지 못할 것입니다 하였다. 子夏가 거보(父)의 呂宰가 되어 정치를 물으니, 孔子가 말하기를, '처둘러 하려고 하지 말고, 작은 이익을 생각하지 말라. 작은 이익을 생각하면 큰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한 데 이르러 박팽년이 또 아뢰기를, '이 말도 또한 임금의 큰 訓戒입니다. 대저 집을 짓는 자는 반드시 그 터전을 크게 하는 것이니, 그런 뒤에야 큰 집을 지을 수 있습니다. 만약 빨리 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터전을 닦는 것이 이미 작으면 비록 큰 집을 이루고자 하더라도 그것이 가히 되겠습니까? 임금이 정치를 하는 道理도 또한 이와 같습니다. 만약 정치를 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대학의 道로써 禹王·成湯·文王·武王의 행한 바를 본받은 다음에야 가히 皇天의 큰 명령을 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功利의 說에 급급하여 規模를 이미 좁게 하면 어찌 능히 왕자의 정치를 이룰 수 있겠습니까?' 하였다.</p>
出處	端宗實錄 卷7. 1年 7月 7日(壬戌) 6 輯 p.605.

『論語』 <子路篇> 13장 15 절의 내용이다 주체에 대한 질문을 통해 박팽년이

신하들의 직언을 들어 행할 줄 아는 왕이 되어야 아첨하는 무리들이 없어지며, 나라가 위태롭지 않고 태평성대를 이룰 수 있다는 왕도의 길을 가르친 것이다.

<表 4-4> 端宗의 讀書討論內容

年月日	端宗 1年 9月 8日
讀書資料	論語
主題	微子去之, 箕子爲之奴, 比干諫而死
經筵官	鄭昌孫
討論內容	정창손: 예로부터 나라가 망하고 어지러움이 모두 임금의 간하는 말을 거부하는데 말미암지 않은 것이 없었습니다. 紂가 능히 이 세 사람을 써서 말을 듣고 간하는 일을 실천하였으면, 주가 아무리 덕이 어두울지라도 죽히 나라를 유지하였을 것입니다. 다만 이들을 쓰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혹은 중으로 삼고 혹은 죽였으니, 商나라가 어찌 망하지 않을 수 있었겠습니까? 원컨대 주상은 이를 경계하여 무릇 諫臣의 말하는 바를 너그럽게 용납하여 받아들이소서.
出處	端宗實錄 卷7. 1年 9月 8日(辛酉) 6 輯 p.612.

『論語』<微子篇>제18장 1절의 내용이다. 이 부분은 단종이 질문한 것이 아니라 정창손이 단종에게 문장을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주면서 신하들이 충고하는 말을 너그럽게 받아들이는 여유 있는 임금이 되기를 바라는 내용이다.

<表 4-5> 端宗의 讀書討論內容

年月日	端宗 3年(1455) 5月 8日
讀書資料	論語
主題	射不主皮, 君使臣以禮 臣事君以忠, 關雎樂而不淫 哀而不傷
經筵官	河緯地
討論內容	1. 射不主皮(활을 쏠 때는 과녁의 가죽을 위주로 하지 않는다) 하위지 설명: 예전에는 활을 쏘는 것이 德으로 보여 揖讓의 禮가 실로 이에 속하였습니다. 후세에는 德과 禮가 모두 없어지고 한갓 놀이가 되었는데, 임금이 오직 武功만 숭상하여 날마다 활쏘기에만 일삼으니, 淫逸과 유희가 모두 이로 말미암아 생긴 것입니다. 청컨대 學問에 專心하시고 聖心을 밖으로 돌려 사냥에 몰두하지 마소서. 2. 君使臣以禮 臣事君以忠(임금이 신하를 부리기를 예로 하고, 신하가 임금을 섬기기를 충성으로 한다) 하위지: 임금이 신하는 義로 합쳐진 것이니, 신하를 부리기를 예로 하고, 임금을 섬기기를 충성으로 하는 것은, 言辭로 서로 接함을 이르는 것이 아니고, 情과 志를 서로

	<p>믿어, 諫하면 행하고 말하면 듣는 것을 이름입니다. 그러므로 예전에 人臣이 세 번 諫하여 임금의 듣지 않으면, 인신이 가버렸습니다. 그러나 차마 가버리지를 못하고 반드시 境內에 있으면서 下教를 기다리고 있다가, 임금이 環을 내리면 돌아오고 轍을 내리면 떠났으니, 君臣 上下가 서로 믿는 義를, 임금이 마땅히 깊이 살펴야 됩니다.</p> <p>3. 關雎樂而不淫 哀而不傷(관저는 즐거우면서도 음란하지 아니하며, 구슬프면서도 상심하지 아니한다)</p> <p>하위지: 唯는 본시 물재로서, 그 물건 됨의 情이 지극하나 분별이 있으므로, 詩人 文王이 聖德이 있어서 賢妃를 얻어 그 다스림을 이룬 것을 기쁘게 보고 興을 賦여 興을 일으킨 것입니다. 그러나 內助의 아름다움은, 진실로 임금의 마음이 바르고 몸이 수양되어, 寡妻에 본보기가 되는 데 말미암은 것입니다. 옛사람이 이르기를 임금이 아침에는 정사를 듣고, 낮에는 訪問하며, 저녁에는 정사를 닦고, 밤에는 몸을 편안히 하여 일찍이 잠시도 정사를 폐하지 않는다. 고 하였으며, 또 예전의 帝王으로 나라의 장구함을 누린 자는 모두 淫逸을 경계하였으니, 청컨대 전하께서 삼가 遊宴하지 마시고 그 德을 닦으소서.</p>
出處	端宗實錄 卷14. 3年 5月 8日(壬子) 7 輯 p.38.

‘射不主皮’는 『論語』〈八佾篇〉 3장 16절의 내용으로 당시 단종은 독서에 전념하기 보다는 활쏘기나 사냥에 빠져있었기 때문에 하위지가 학문에 열중하라는 충고의 말로 볼 수 있다. ‘君使臣以禮 臣事君以忠’ 부분은 『論語』〈八佾篇〉 제3장 19절로 하위지가 단종에게 군신간의 신의를 지키도록 가르친 것이며, ‘關雎樂而不淫 哀而不傷’은 『論語』〈八佾篇〉 3장 20절의 내용으로 이 글을 통하여 임금으로써 즐거운 일에만 빠지지 말고 아침, 낮, 저녁에 해야 할 일을 제시하면서 항상 책과 가까이하고 수양하는데 힘쓰도록 권유한 내용이다.

<表 4-6> 端宗의 讀書討論內容

年月日	端宗 2年(1454) 2月 9日 經筵
讀書資料	孟子
主題	關雎樂而不淫
經筵官	檢討官 梁誠之
討論內容	<p>양성지: 지금 漢成府에서 市廛의 일을 모두 관장하고 있는데, 衙讞이 지극히 간사하오니, 엄히 懲治 하소서</p> <p>단종: 의정부와 의논하도록 하라</p>
出處	端宗實錄 卷10. 2年 2月 9日(庚寅) 6 輯 p.670.

『孟子』양혜왕장구 하-5절의 내용으로 제선왕과 맹자와의 대화내용 중의 한 구절을 익히면서 당시 시전의 관리들의 비리를 바로잡자는 건의이다.

<表 4-7> 端宗의 讀書討論內容

年月日	端宗 2年(1454) 12月 18日 經筵
讀書資料	中庸
主題	18章의 或問(모든 帝王의 사당은 모두 스스로 營建하여 각기 一處를 삼는다.)
經筵官	河緯地
討論內容	<p>단중: 그 말이 무슨 뜻이나?</p> <p>하위지: 우리 조정의 일로써 말씀드리면, 옛날 태종께서 종묘를 지으려고 하시며 말씀하기를, '내가 장차 이 사당에 들어갈 것이니, 制度를 웅장하고 화려하게 해서 안 된다.'고 하셨으니, 이것은 선왕께서 簞를 작게 짓고 화려하지 않은 옷을 입으려는 아름다운 뜻입니다. 그러나 그 門堂과 寢室의 제도가 약간 옛날 제도와는 합당하지 못하여 제사를 돕는 執事가 겨우 돌아다니는 데 족할 뿐이어서 世宗朝때 群臣들이 고쳐 짓기를 건의한 자가 있었습니다. 세종께서는 사당의 제도는 태종께서 스스로 하신 것이니, 내가 차마 고칠 수 없다' 하시고 마침내 명하여 그대로 두게 하였습니다. 비록 그렇기는 하지만, 이제 마땅히 개조해야 합니다. 근일에 報漏脚 일을 신 등이 두세 번 청하였으나, 아직 허락을 하지 않으셨는데, 大臣의 청을 모르고 계십니까? 성상께서 스스로 결정하신 것입니까? 三代이전에 漏器를 써 天를 다스린 자를 듣지 못하였으니, 나라를 다스리는 道가 어찌 漏器의 大小에 달렸겠습니까? 또 이 關은 기울어져 위험하거나 비가 새는 곳도 없는데, 어찌하여 결단코 改造하지 않으면 안 됩니까? 하물며 近年에 水災와 雨災가 잇달아서 백성들이 農業을 실패하였는데 營造가 끊이지 않아서야 되었습니까? 하였다.</p>
出處	端宗實錄 卷12. 2年 12月 18日(甲午) 6 輯 p.714.

주희가 주석한 『中庸』은 章句와 或問 2종이 있다. 이 중 단중은 독서자료로 흑문을 선정한 것이다. 단중이 『中庸』 或問 18章의 문구 중에 “모든 帝王의 사당은 모두 스스로 營建하여 각기 一處를 삼는다.”란 의미를 잘 파악하지 못하고 하위지에게 그 뜻이 무슨 뜻이냐고 물어 보자 하위지가 이해하기 쉽도록 선왕의 일을 비유하여 설명하면서 선왕의 종묘 수리는 해야 옳지만 보루각의 개조에 있어서는 수재와 한재가 계속되어 백성들은 농사에 실패하는 이때에 합당하지 않다는 내용이다.

그 밖에 경연에서 독서토론 중에 책의 인출에 대해서 논의한 경우도 있다. 단종 1년(1453) 7월 22일에 성삼문이 『高麗史節要』를 교정하여 인출을 마치고

종이를 바친 사람까지 나누어 주려고 했는데 이미 頒賜記에 오른 50명을 삭제했다는 소식을 듣고 이들에게 모두 줄 수 있도록 추가 인출하자는 건의를 했으나 승낙을 받지 못한 일이 있으며,<sup>39)</sup> 동년 9월 25일에는 승정원에서 최치원의 계원필경을 보완하여 새기기 위해 홍천사에 간직한 책판을 교서관으로 옮겨 열람한 결과 50여 판이 빠져있으므로 경연에 보관한 판본을 보내서 보완하여 새기도록 건의하자 그 뜻이 이루어지기도 하였다.<sup>40)</sup>

이상으로 <表 4>의 내용을 보면 단종이 경연관들과 독서토론을 했다가보다는 유가경전의 내용을 읽어가며 난해한 부분을 해석하고, 질문하는 형식으로 진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본 독서를 통해서 경연관들은 단종이 덕을 쌓고 올바른 왕도를 행하여 태평성대의 꿈을 실현시키려는데 그 목적을 둔 것이다.

#### 4. 結 言

이상은 문종, 단종연간에 경연에서 실시된 父子의 독서행태 및 독서토론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경연제도에 있어서는 領經筵事는 3명(정1품)으로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이 겸임하고, 知經筵事 3명(정 2품)으로 대제학이 겸임, 同知經筵事 3명(중 2품)으로 제학이 겸임, 參贊官 7명(정 3품)으로 승지와 부제학이 겸임, 그리고 侍講官(정4품)은 직제학과 부응교, 시독관(정5품)은 교리와 부교리, 檢討官(정6품)은 수찬과 부수찬, 司經(정7품)은 박사, 說經(정8품)은 저작, 典經(정9품)은 正字가 겸임하였다. 그밖에 사간원의 관원 1명과 사관 1 명이 윤번으로 경연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 원칙이었다.

2) 독서자료의 선정은 성리학 관계의 자료 중에서 주로 경연관과 상의 후에

39) 朝鮮王朝實錄. 端宗 1年 7月 丁丑(22日) 권7. 책6. p.607.

40) 朝鮮王朝實錄. 端宗 1年 9月 戊寅(25日) 권7. 책6. p.617.

선정되었다. 문종의 경우는 병서를 읽고 싶었으나 경연관들의 반대로 성사되지 못하고 『대학연의』로 경연을 시작하였으며, 단종은 졸곡 전에는 『禮記』의 <곡례편>을 읽었고, 졸곡 후에는 『論語』가 선정되었다.

3) 독서행태에 있어서 문종은 거의 날마다 경연을 열어 토론을 실시하려 했으나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그의 토론 회수를 보면 집권 2년 3개월에 총 20회에 가장 많은 토론 회수를 보인 해는 142회인 집권 1년이다. 단종의 경우는 어린 나이에 집권하여 신병상의 이유와 觀射나 사냥이란 외부환경에 의하여 경연을 자주 비우게 되어 경연회수는 총 25회로 나타났다.

4) 경연에서의 독서자료와 토론내용을 보면, 문종은 『近思錄』, 『大學衍義』, 『論語』, 『孟子』, 『中庸』이 전부였으며, 단종은 『論語』, 『孟子』, 『中庸』이었다. 문종은 세자시절 독서량이 많았지만 단종은 그렇지 못하였다. 토론내용에 있어서도 문종과 차이를 보이고 있다. 문종은 성리학의 기본이론을 바탕으로 실사구시를 추구하는 실학적인 내용이 담겨져 있는 반면에 단종의 경우는 교육적인 목적이 담겨져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상의 내용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경연에서의 독서가 왕 자신의 수양이나 올바른 정치이념을 세우는 데 필수라고 여기고 왕이 교체될 때 마다 경연제도를 재정비하면서 그 명목을 이어나갔다. 새로운 독서자료를 선정하고 왕 자신이 그 자료를 읽고 그 내용에 따라 경연관들과 토론을 거치면서 정치에 반영하려고 노력했던 점이다. 따라서 이러한 사실들은 초기 제왕들의 독서행태를 올바르게 인식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또한 이들의 독서 경향을 통해 조선시대 독서문화를 단편적이거나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되리라 생각한다.

<참고문헌>

1. 原典

朝鮮王朝實錄  
增補文獻備考  
經國大典  
備齋叢話

2. 論文

- 姜泰訓, “朝鮮朝 經筵의 教育的 役割,” (박사학위논문. 원광대학교대학원 1991)
- 김윤식, “朝鮮世祖의 學術活動과 書籍文化에 대한 考察,” 『書誌學研究』 第29輯 (2004.12), p.15-48
- 金重權, “朝鮮 太祖·世宗年間 經筵에서의 讀書討論 考察.” 『書誌學研究』 제27집(2004.6), p.281-308.
- 南智大, “朝鮮初期의 經筵制度,” 『韓國史論』 6(1986). p.117-170
- 李相玉, “經筵에 나타난 經學과 帝王,” 『友石 文理大·法經大論文集』 第4輯 (1970. 12), p131-186.